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5호 8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5 호 (153)
1964년 8월 (상)

차 례

국토 건설과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박 문 규

국토 건설과 국토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토 건설—이것은 나라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이 땅우에 진행하는 백년 대계의 기본 건설 사업이며 대자연 개조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재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까지도 타산하여 나라의 경제 문화 건설을 진행하며 자연을 개조하고 도시와 농촌을 알뜰히 꾸리는 방대하고 항구적인 국가 건설 사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토를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문제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국토 건설과 그 관리 사업에 커다란 국가적 력량을 돌림으로써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전쟁 시기 미제의 만행에 의한 국토의 깊은 상처들을 단시일 내에 회복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우리 나라에서의 국토 건설 사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립은 국토 건설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당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우월성과 날로 공고화되는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공업과 농업의 배치, 토지 정리 및 개간, 강하천의 정리, 관개 체계의 확립, 산림의 조성, 교통 운수망의 배치, 도시와 농촌 건설 등 전반적 분야에 걸쳐 국토 건설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도처에 수 많은 공장, 광산, 발전소, 항만, 철도, 전기 및 체신 시설들과 조밀한 관개망이 건설되였으며 나라의 방방곡곡마다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건설하여 놓았다. 우리의 도시들에는 현대적인 문화 주택과 공공 건물을 비롯한 각종 문화 후생 시설, 공원, 유원지, 난방 시설, 상하수도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으며 농촌에는 오막살이 대신에 수 많은 새 문화 주택들과 학교, 구락부가 건설되고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들이 증설 확장되였다.

오늘 나라의 토지, 산림, 강하천, 호수, 연안, 령해 등과 명승지, 천연 기념물들과 풍부한 자연 부원들이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광범히 개발 리용되고 있다.

우리가 국토 건설에서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는 자력 갱생의 위대한 혁명 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며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 만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국토 건설과 그 관리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나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호상 유기적으로 련결하는 통일적 계획에 의하여 국토를 더욱 전망성 있게 건설하며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를 알뜰하게 보호 관리하며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건설하고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각종 자원과 부원이 무진장하게 있으며 선조들이 남겨 놓은 찬란한 문화적 재보들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이르는 곳마다가 명승 절경이며 산천이 아름다와 금수 강산으로 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 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 곳 어디서나 끓인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며 동서 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 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 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 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오늘 국토를 더욱 전망성 있게 건설하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과거 봉건 통치 시대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국토를 전망적인 견지에서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 하였었다면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된 오늘에 와서는 국토를 더 잘 건설하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하고 달라붙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 강산을 알뜰히 꾸리고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마음 대로 개발하며 이 땅 우에 전설된 그 모든 재산들을 전체 근로자들의 행복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더 잘 리용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62년에 두 차례에 걸친 교시에서 이러한 성숙된 조건에 의거하여 공업과 농업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산림 및 하천 건설과 철도, 항만, 체신, 도로망, 주민지 배치 등 나라의 기본 건설과 자연 개조 사업을 정확히 포치하고 국토를 보다 더 전망성 있게 건설하며 나라의 일체 부동산에 대한 보호 관리와 감독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자원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며 도시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우리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다운 금수 강산으로 전변시킬 데 대

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금년 2월 10일 교시에서 지난 기간 국토 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총화 분석하시고 다시금 국토 건설과 그 관리에 대한 기본 방도를 천명함과 동시에 국토 관리 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개편 강화할 데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내무성에 도시 경영성이 통합되고 각 도에는 내무 총국, 각 시, 군에는 내무 관리처가 나오고 국토 관리에 필요한 연구 기관들과 각종 기업소들이 새로 조직, 확장되였다.

이것은 국토와 자원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물, 시설물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보호 관리하며 필요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는 유일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토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각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관리 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국토 관리 사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유일적이며 질서 정연한 국토 관리 체계의 확립은 우선 당면 문제 뿐만 아니라 먼 장래의 발전까지 과학적으로 예견하여 국토 건설의 규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자원과 부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일체 부동산을 비롯한 부원과 재산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제 문제는 새로 확립된 국토 관리 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국토 건설과 관리 분야 앞에 제시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하나하나 철저히 실현해 나아가는 데 있다.

국토 건설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투쟁이며 우리 매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임무로 된다.

우리는 국토 관리에 대한 당의 방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국토 건설과 국토 관리에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토 건설에 국토 총계획을 선행시키고 나라의 자연 부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며 둘째로, 국토 건설에 관리 사업을 병행시킴으로써 나라의 자원과 건축물을 비롯한 일체 재산들을 정확히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을 알뜰하게 꾸리며 세째로, 국토 건설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 감독 체계와 전 인민적 관리를 배합시킴으로써 국토 관리 전반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고 이 사업을 인민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

국토 건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국토 총계획을 국토 건설에 선행시켜 정확히 작성하는 문제이다.

국토는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과 전망적 과업을 옳게 타산하면서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나라의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경제 부문 간의 련계가 복잡하여지고 있는 현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광산, 탄광을 개발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며 주민지를 배치하며 항만과 철도, 도로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장래 발전을 예견하지 않고 당면 문제만을 일면적으로 타산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들을 뜯어 고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며 결국 막대한 국가 자금과 자재를 랑비하게 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 속도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계획이 없이는 건설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적 총계획이 있는 조건 하에서만 호상 련결, 제약되고 있는 국토 건설의 모든 부문 호상간에 정확한 련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나라의 자원을 가장 효과 있게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국토 건설에서 국토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하다.

국토와 자원의 종합적 리용은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며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국토의 종합적 리용은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정확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해당 대상의 유리한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모든 부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 및 그 공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과 그 공고화는 나라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국토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여 그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투쟁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국토의 종합적 리용의 견지에서 국토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경제 부문들의 다방면적 발전과 그것들의 유기적 련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당은 지난 기간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원과 부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는 앞으로 자립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국토를 전망성 있게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 건설의 계획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토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광산을 하나 개발할 때에도 농경지와 주민지에 그리고 강하

천과 호소들에서의 물'고기 서식에 주는 영향까지를 고려하며 산림을 한 정보 조성할 때에도 어떤 곳이 적지인가를 구체적으로 타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토의 종합적 리용에서는 부문 간의 련계와 함께 개별적 대상의 종합적 리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가령 대동강이라면 분류와 지류들에 저수지를 얼마나, 어떻게 건설하여 홍수는 어떻게 조절하고 전력 생산과 관개 용수 보장은 어떻게 하며 그 류역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공업 용수는 어떻게 대주며 또한 수문은 어디에 얼마를 건설함으로써 수상 운수와 담수 양어 사업은 어떻게 발전시키며 강안은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하겠는가 등 강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대로 나라의 자원을 전망성 있게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국토 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국토 총계획은 반드시 10 년, 20 년, 30 년, 50 년의 앞을 내다 보고 전망적으로 세워야 한다.

10 년, 20 년, 30 년, 50 년 앞을 내다 보면서 전국의 공업과 농업 배치, 도시와 농촌, 교통 운수, 체신, 산림, 강하천, 도로 등의 배치와 건설 계획을 전국적, 지역적, 도'적, 군'적으로 수립하고 국토를 규모 있고 질서 정연하게 꾸릴 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10 년 계획이라면 10 년 후에는 저수지, 제방, 산림, 도로가 어디에 얼마나 건설되고 도시와 농촌이 얼마나 종설확장되며 전선은 어떻게 가설되며 항만은 어디에 건설되며 어디에는 어떤 어류가 얼마나 서식할 것인가 하는 등 국토 건설 전반에 대한 안이 뚜렷이 나와야 한다. 말하자면 국토 총계획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의 휘황한 앞날을 환히 내다 보고 건설을 포치하는 공산주의적 계획이다.

따라서 국토 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들은 우선 건설을 급속히 발전하는 인민 경제 부문들 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며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도 예견하여 종합적이며 전망적으로, 통일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불합리성과 기관 본위주의적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 대상을 경제적 및 자연적 특성에 적응하게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주민들이 대도시에 과대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 도시들과 농촌 부락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업과 도시가 농업과 농촌을 더 잘 지원, 방조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나라의 내륙지를 더 합리적으로 개척하여 나라의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나라의 풍부한 물 자원, 지하 자원, 토지 자원, 동식물 자원 등 모든 자원을 전면적이며 종합적으로 개발 리용하며 특히 토지를 회득하고 그 것을 극력 절약하도록 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나라의 강로를 아름답게 정리 미화하며 국토의 풍치와 문화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휴식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 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국토의 현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의 현 실태를 장악하지 못 하고서는 현실을 옳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당과 정부는 많은 전문가, 기술자들을 국토 조사 사업에 동원하여 주었으며 조사에 필요한 온갖 물질 기술적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었다.

현재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남도 등은 이미 조사 사업을 끝내였으며 명년 상반년까지에는 전국적으로 조사 사업이 끝날 것이다.

국토 조사 사업은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과 장래의 국가 기본 건설 전반에 관계되는 광범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는 조사 대원들 뿐만 아니라 각급 당 조직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방조가 필요하다.

지금 많은 기관,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은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해 나서고 있다.

내무 부문을 비롯한 관계 부문 일'군들은 국토 조사 자료들을 수집 정리 연구하며 국토 총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한다.

계획 작성 사업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국토 건설은 더 잘 진행될 것이다.

국토 총계획 작성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 국토 총계획 그리고 지역 계획과 도 총계획을 세우며 도에서는 군 총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 계획 작성 사업과 함께 국토 계획 실현에 대한 통제 감독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현행 국토 건설의 모든 부문을 엄격히 지도 통제함으로써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하며 농촌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내무 기관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내무 부문 일'군들은 국토 건설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기술 과제를 심사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기술 문건을 합의 또는 승인하고 그 집행을 통제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이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 일'군들은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

국토 총계획을 작성하는 사업과 함께 현행 국토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도시와 농촌을 알뜰하게 꾸리며 국토를 미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게 꾸리며 국토를 미화하는 것은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상 요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그 자체의 필연적 요구이다.

우리는 강하천을 건설하여도 알뜰하게 건설하며 주택을 지어도 아담하게 짓고 집 주위에는 과실 나무들을 심어 봄이면 백화 만발하고 가을이면 각종 과실이 주렁지게 하며 우리 나라를 그야말로 살기 좋고 경치 좋은 금수 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국토의 미화 사업에서는 새로운 건설을 잘 하는 것과 함께 도시와 농촌에 이미 건설하여 놓은 건물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정비 보수하며 문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에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각종 시설물들 그리고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수 많이 건설되였으며 거리와 마을들은 날에 날마다 변모되여 가고 있다.

이미 건설하여 놓은 이 모든 건물과 시설물을 잘 관리하면 할수록 그것들의 수명은 더 연장되고 경제적 효과성도 더욱 높아지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도 일층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우선 비가 새거나 불이 잘 들지 않고 기술 상태가 나쁜 주택들과 건물들을 보수, 갱신하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그것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동시에 외부를 아름답게 단장함으로써 건물들의 리용 가치와 문화성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공공 건물, 각종 시설물, 국가 주택 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의 대보수 및 중보수까지도 직접 국가가 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또 하나의 인민적 시책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만 제기할 수 있은 조치이다.

도시와 농촌을 꾸림에 있어서는 원림화 사업을 잘 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을 보람찬 창조적 일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보금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 유원지, 록지들과 동식물원들을 합리적으로 건설하여 우리의 도시와 농촌 마을들에 록음이 우거지고 철에 따라 각가지 꽃이 만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문화적 휴식을 보장하며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을 알뜰하게 꾸리는 동시에 금강산, 묘향산, 룡악산, 칠보산 등 우리 나라 명승지들을 잘 정비하며 새로운 유원지들을 건설함으로써 모든 곳을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유원지들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도시와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을 선택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을 가족과 함께 그 곳에 가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 강하천, 도로, 연안, 령해의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나라의 자원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잘 보호하며

국토를 아름답게 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전체 국토 면적의 근 80%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목재를 비롯한 공업 원료와 유용 동식물 등 각종 부원이 무진장하게 있다. 산림은 또한 수원을 함양하고 기후를 일정하게 조절하며 농경지를 보호하므로 국토를 보호하고 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특히 농경지가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산을 효과 있게 리용하여 농경지에서 획득하던 유지, 섬유 등의 공업 원료를 산에서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 조건에서 이러한 섬유, 유지 원료를 더 많이 얻어 낼수록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 윤택해질 것이다.

우리 당은 산림 조성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1970년에 가서는 40만 정보의 경제림을 포함하여 총 60만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 지리적 조건과 나무의 특성에 적응하게 경제림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원칙에서 지역화를 정확히 보장하되 빨리 자라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분지, 초피, 동배, 수유나무 등과 호두, 잣, 가래, 살구나무 등으로 유지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기름을 대량 얻어 내며 뽀뿌라, 황철, 삼송, 닥나무 등으로 섬유 제지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천과 종이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용재림을 조성하여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특히는 광산, 탄광 지대의 산들에는 갱목림을, 주민지 부근 산들에는 화목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갱목과 화목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밖에 각종 보호림과 풍치림을 광범히 조성하여 전국의 산천을 모두 록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미 조성해 놓은 산림을 잘 관리함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국토 관리에서 강하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나라의 경제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하천 리용은 더욱 다양하고 광범해진다. 또한 강하천을 잘 건설하고 정비함으로써만 홍수의 피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강하천이 발달된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는 수량이 풍부한 대하천과 중소 하천이 도처에 분포되여 있으며 그 리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당은 강하천 건설과 정리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특히 1946년에 김 일성 동지는 보통강 개수 공사의 첫 삽을 들어 전체 인민들을 하천 정리와 국토 건설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전후 당은 세인을 놀래는 대자연 개조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나라의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전국 도처에서 하천 건설 및 그 정리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달성한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 하천 건설 및 정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하천 건설의 기본 방향은 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중요 하천들로부터 시작하여 령토 내의 모든 강하천들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최단 기간 내에 홍수 피해로부터 국토를 완전히 보호하며 하천을 인민 경제 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천 건설 및 정리 사업에서는 대하천 공사와 함께 중소 하천 건설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하며 농촌 부락의 실개울까지도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

도로의 건설 및 정리 사업은 국토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전국의 도로를 항상 튼튼하고 규모 있고 아름답게 정리하여야 하며 새로운 현대적인 도로들을 건설함으로써 교통 운수의 원활성과 국토의 미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서 연안, 령해 관리를 개선하는 것은 나라의 재부를 증대시키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해안에는 새로운 토지를 얻어 낼 수 있는 광대한 면적의 간석지가 개척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우리는 이미 많은 간석지를 농경지, 염전 및 로초전으로 전환시켰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연안 령해 관리 사업에서 새로운 어장을 더 많이 개척하며 수산물 양식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아직 일부 불비한 항만 및 포구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담수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수산 자원을 더욱 풍부히 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토와 나라의 자원과 일체 부동산을 정확히 보호 관리하기 위한 감독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막대한 국가 투자와 전 인민적 로력 투쟁으로 이미 건설해 놓은 각종 구축물, 건물들을 귀중히 보호 관리하며 그것들의 수명을 연장하며 경제적 효과성을 보다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1964년 2월 10일 교시에서 이미 건설하여 놓은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한 쪽에서는 건설하고 다른 쪽에서는 건설물을 파괴하여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건설에 관리를 병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재산에 털끝 만큼의 손실도 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자원과 일체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고 그 관리 보호 책임 한계를 명확히 가르며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주택, 공공 건물, 시설물, 문화 유적, 공원, 유원지, 명승 고적 등의 현상태를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그것들의 정비 보수 사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임의로 건물, 시설물들을 뜯어 옮기거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손상, 파괴하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토지는 국토의 기본 부분이며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이다.

농경지를 비롯하여 토지를 랑비하는 일체 현상들을 엄격히 통제하며 수산 자원, 유용 동식물 자원, 지하 자원 등 모든 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통제 감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당과 정부에서는 국토의 감독 통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각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감독 통제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감독 부서들을 설치하고 감독원들을 배치하여 주었다.

우리는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국토의 보호 감독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진행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토 관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 대중을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것이다.

국토 관리 사업은 나라의 전반적 지역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광범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어느 한 전문 기관이나 한정된 일'군들만으로는 훌륭히 진행될 수 없다.

오직 나라의 주인인 전체 인민 대중이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됨으로써만 이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국토에 대한 국가적인 유일적 관리 체계와 전 인민적 관리를 배합시킬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자기의 향토와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국토 관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일상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국토 관리에 대한 당의 정책을 틀어 쥐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실제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현실과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를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며 아름다운 금수 강산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더 빨리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극복 방도

정 연 옥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이 사업은 장구하고 꾸준한 투쟁과 노력을 요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 계획적이며 의식적으로 력량과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도시와 더불어 농촌의 발전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고 도시와 농촌 간의 밀접한 련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8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는 도시와 농촌의 발전에 대한 당의 이러한 립장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이후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간에 적대적 관계가 놓여 있던 과거 사회에서 도시가 농촌을 착취 압박하고 령락시킴으로써 조성된 력사적 유물이다. 우리 제도 하에서도 그것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의 유산을 단번에 청산할 수 없다는 사정과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업 및 도시의 발전 수준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앤다는 것은 도시가 농촌을 적극 도와 줌으로써 뒤떨어진 농촌을 발전된 도시의 수준에 끌어 올리는 문제인 것 만큼 여기에는 도시가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공업적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선다. 그러자면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에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테제) 이러한 사정은 불가피하게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남아 있게 하며 그의 극복을 위한 투쟁을 일정한 기간 전면에 제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일단 공업적 토대가 축성된 다음에는 도시가 농촌을 돕는 데로 방

향을 돌려야 하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을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결국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뒤 전면적으로 제기되여야 하며 공업적 토대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더욱 이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여야 한다.

이 때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야 하며 계통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만일 이렇게 시기가 성숙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그 만큼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오히려 그 차이를 더 심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테제가 제시한 중요한 사상은 바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떠한 차이를 없애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떠한 차이들을 없애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앎으로써만 이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명확한 방도를 가지고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테제는 그의 전반에 걸쳐 크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 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도시 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로동자들의 그것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며, 그리고 소유 관계 분야에서 농업이 공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경제 관리 수준에서도 농업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또한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분배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간의 차이를 첨가해서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공업과 농업 간의 분배 관계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큰 주목을 돌리였다.

이러한 구분은 참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가장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혀 준 것이다.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들 중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보다 근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다.

테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 관계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관리 수준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방점은 인용자의 것)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는 전체 차이들 중에서도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 된다. 그것은 바로 소유 관계와 경제 관리 수준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나 분배 관계에서의 차이들도 모두가 바로 도시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 상 차이로부터 불가피적으로 나오게 되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가령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를 본다 하더라도 도시에는 전 인민적 소유 형

태가 지배적이고 농촌에는 협동적 소유 형태가 지배적인데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데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이 자기의 동맹자를 오직 자원적인 협동화의 길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에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이러한 로동 계급의 도덕적 립장과 더불어 기술, 문화, 사상 상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근원까지 밝혀져야 협동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말하자면 농촌에서의 생산력 수준의 현 상태는 사회주의 하에서도 그에 따른 생산 관계의 일정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며 또 우리는 문화적 락후성이 기술적 락후성과 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고 사상적 락후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것이 불가피적으로 그들의 소유를 단번에 전 인민적 소유에로 넘기는 것을 방해하며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가지는 것과도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리해할 수 있다.

결국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 경리 제도는 사회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의 의식 발전 정도에 적합한 것이다.》(테제)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들 중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차이들을 밝혀 줌으로써 그 차이들을 없애기 위한 과업 해결에서 선후차와 중심 고리를 옳게 틀어 쥐고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방침을 준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극복해야 할 차이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을 반드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왜냐 하면 도시와 농촌 간에는 농촌의 지역적 분산성, 농업의 자연 계절적 제약성, 공업에 비한 농업의 생산 주기의 완만성 등으로 이루어지는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 간에 조성되였던 대립과 착취 관계로 해서 도시가 앞서고 농촌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차이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그러한 조건에서 생긴 차이와 같은 부류에 놓고 차이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못 하다.

테제는 이것을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의 특징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비본질적 차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참으로 도시와 농촌을 서로 구별하는 특징인 것이다.

공산주의에로 가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없어질 것이지만 특징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극복은 그의 특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례컨대 도시와 농촌 간의 기술적 차이의 극복은 농촌의 분산성, 자연 계절적 제약성이 오늘처럼 농업 발전에 그렇게 심한 영향을 주지 않게 할 것이며 생산 주기의 완만성도 상당한 정도로 단축시킬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 과업으로 나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방도에 대한 문제이다.

테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통일적 과정으로 진행되여야 할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산주의에로 가기 위한 계속 혁명의 중심 과업들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을 반드시 통일적 과정으로 틀어 쥐고 계속 추진시켜 나감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 있게 진행할 수 있고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 문화 혁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반드시 자본주의가 달성한 기술 문화적 수준보다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에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도 오르기 전에 사회주의 기술, 문화 혁명의 종결을 말하거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보다 더 선진적인 이 제도의 위신을 떨구는 것이며 혁명을 중도반단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인류 력사 상 가장 아름다운 인간 관계와 인간들을 형성하여야 한다.

테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통일적 과정이 그것들 간의 어떠한 호상 관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테제는 이 세 가지 혁명 과업들 중에서도 사상 혁명은 다른 혁명 과업에 앞세워야 할 혁명 과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우선 사람들의 혁명적 자각성을 제고함으로써만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있고 이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의 성과적 추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또한 사상의 발전이 기술적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사정과 사상 혁명은 기술, 문화 혁명들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혁명 과업이라는 데도 있다.

사상 혁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 문화 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사상 혁명 자체도 옳게 수행될 수 없다. 기술, 문화의 발전을 떠나서 사상의 발전이 따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도 문화, 사상의 발전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고 문화의 발전도 기술, 사상의 발전과 떨어져서 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 3자를 통일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진 농촌을 추켜 올림에 있어서도 그것들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심중히 고려하고 그 원칙에서 사업함으로써만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소유 형태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본 과업은 농촌 경리 부문에서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협동적 소유 형태를 어떻게 공업의 그것처럼 전 인민적 소유 형태로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테제는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도를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밀접한 련계 특히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 소유에 대

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면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방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금 협동 경리의 농업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 협동 경리 발전에서의 그것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 기업소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 생산에서 점차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협동 농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란 모두 전 인민적 소유의 그것으로 꾸려질 것이고 협동적 소유로 남게 될 생산 수단이란 토지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에 가서는 농민들의 의식 수준도 공산주의적인 것에 가까우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벌써 토지에 대한 협동적 소유도 문제시될 것이 없다.

테제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관리 운영 수준에서의 차이의 극복 방도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공업의 경리 운영 방법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적 관리 운영 방법의 도입을 의미하며 그의 부단한 개선 발전을 위한 방도를 의미한다.

농업 협동 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 기술로 급속히 장비되고 있다. 농업의 경영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접근하여 가는 만큼 농업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도 공업의 기술적 관리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 하여 농촌에서도 기업적 방법에 기초하여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경영 활동을 가일층 계획화, 조직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수준을 공업의 운영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와 지원 문제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민들의 처지는 물론 과거 사회에서의 그들의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되였고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며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농민 문제 해결에 대하여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처지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으나 수천 년 동안 소생산자로서, 락후한 로동 도구에 매여 달려 많은 고생을 하면서 2중 3중의 착취를 받아 온 그들은 역시 상당한 정도로 과거의 농민적인 취약성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로동 계급의 지원, 참으로 책임적인 지원이 계속 요구된다. 그리고 원래 농민들을 공산주의에로까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로동 계급의 사명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은 농업의 특수성과 농업이 가지는 의의로 보아도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농업은 자체로서 자체의 생산 도구를 해결하지 못 하는 경제 분야이다. 이것은 반드시 도시 공업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공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것이다. 공업은 농업에 로동 도구를 대 줌으로써 농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지만 동시에 공업도 역시 농산물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농업은 공업 부문의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보장하며 경공업 부문에 원료의 많은 부분을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나라의 경제 전반을 급속히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공업을 발전시키며 그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 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방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원은 오늘 도시 공업의 위력이 장성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 있는 조건 하에서 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테제에서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이것을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테제에서는 우리 당이 이미 계통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투쟁한 농업 현물세제의 페지, 국가 부담에 의한 모든 농촌 기본 건설의 실시, 국가 부담에 의한 농촌 문화 주택의 건설 문제 등을 실현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국가의 이러한 지원과 방조만이 참으로 농민들을 고된 로동과 온갖 락후성에서 영원히 해방할 수 있으며 농민들을 로동 계급의 영원한 동맹자로,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위한 진정한 투사로 만들 수 있고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도로서 또한 테제가 제시한 **중요한 사상은** 전국 각지에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할** 데 대한 문제이다.

이 사상은 물론 1962년에 소집되였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이미 제기되였고 또 구현되고 있는 문제이다.

테제는 그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리론적으로 그것을 론거 지였다.

지역적 단위와 거점의 설정은 우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준 것이다.

또한 지역적 단위와 거점의 설정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계통적으로 밀접하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길을 밝힌 것이다.

지역적 단위와 거점의 설정은 매 지방에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를 가지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것은 바로 그러한 단위들을 요구하게 될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로의 전진의 견지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만일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란 아무래도 일정한 무질서와 무계획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가 주로 일정한 도시와 일정한 농촌 지역이 서로 유리성의 견지에서만 련계를 맺게 될 수 있으며 그것도 행정적 체계들을 가로 질러 곤난을 조성하거나 교통 상으로 불합리하고 복잡한 점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 당은 매개의 군 범위를 지역적 단위로 설정하고 군급 지도 기관, 경제 기관, 문화 기관 그리고 그것들이 집중된 군 소재지를 이 단위의 거점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정확히, 합리적으로, 계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당은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농촌의 특성, 도시와 농촌의 련계의 특성, 일정한 지역적 단위의 제반 자연적 및 기타 특성—에 주의를 돌렸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하고 테제는 지적하고 있다—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 내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 기관들, 물질 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적 단위와 거점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타산과 요구는 농촌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단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일정에 제기한 단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를 더욱 크게 해 준다.

우리 당은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을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 옳게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군이 그러한 역할을 놀도록 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당은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군 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힘을 돌렸다.

당은 군에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 계획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을 비롯한 많은 문화 후생 시설들을 건설하였다.

특히 당은 지방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를 통하여 창성군의 사업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군들 앞에 나선 과업들을 명확히 내놓음으로써 군 사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들은 모두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

우리는 테제에서 제시된 원칙과 사상을 옳게 관철해 나간다면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극복되고 전국 도처가 조화롭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위대한 구상과 방침을 리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의 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확립된 계획화 체계

김 하 광

최근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인민 경제 계획화 체계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할 데 대한 중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독자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국가 계획 위원회에 직속하는 국가 계획 위원회 도, 시, 군 위원회들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성, 중앙 기관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계획 부서들은 해당 상급 기관에 복종하는 동시에 국가 계획 위원회 및 그 지방 조직들에도 종속하게 되였다.

계획화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금번 조치의 결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확립은 인민 경제 계획화 체계 전반에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구현한 것으로서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보다 완성시키는 분야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그것은 계획화 사업에서 국가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며 인민 경제의 모든 균형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한층 힘 있게 촉진시킬 것이다.

1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중앙적인 일원화 특히 계획화에서 전국적인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경제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 밑에 모든 경제 부문들과 계획 단위들의 활동을 옳게 결합시켜 목적 의식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민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를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경제 관리에서 근본 문제의 하나인 계획화의 전 행정을 레닌적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 운영하여야 하며 나라의 모든 계획 기관과 계획 일'군들을 유일한 지도 체계에 의하여 하나의 의지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레닌은 《…전 국가 경제 기관의 통일적 대기구 즉 수억만 사람들이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도록 사업하는 경

제적 유기체에로의 전화》(전집 제27권, 98～99 페지)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제기되는 거대한 조직적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계획 경제를 실시한 첫 시기부터 언제나 계획화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방침을 견지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기되는 정치 경제적 과업과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 그리고 공업 및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대한 국가 관리 지도 체계에 맞게 계획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시켜 왔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 각 부문들과 국내 각 지역들 간의 합리적인 련계와 균형을 보장하고 나라의 모든 생산 자원과 기술 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달성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이와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만일 모든 부문이 하나의 유기체로 밀접히 결합된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 관리하지 않으며 지방 분권화한다면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나라의 경제 생활 전반을 조직 지도하여 나갈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는 결코 분권화할 수 없으며, 계획화 사업에서 그것은 더욱 그러하다.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시도는 경제의 각 부문과 지역들 간의 합리적인 련계와 균형을 보장할 수 없게 하며 막대한 사회적 자원의 랑비를 가져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 전반에 심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금번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현시기 나라의 경제 발전과 계획화 분야 앞에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게 계획화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경제의 규모가 날로 더욱 확대되고 그 기술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 부문들과 부문 내부 간, 국내 각 지역들 간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가 더한층 복잡하여지고 있다.

또한 지방 경제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지방 공업, 농촌 경리, 기본 건설 부문들의 지도와 관리 기능이 인민 위원회로부터 분리되였으며 그것들은 각각 자기의 부문 별 지도 체계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는 경제 부문 상호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나라의 모든 작전 및 전투 계획 단위들을 유일한 체계와 방법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의 확립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확립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이러한 객관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말단 지도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 계획 작성 단위들로부터 전투 계획 작성 단위들에 이르기까지 국가 계획 기관의 직접적이며 유일적인 지도를 미치게 함으로써 날로 복잡하여지고 다양해지는 경제 부문들과 지역들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게 하며, 당과 국가의 의도가 기층 계획 세포에까지 보다 신속히 전달되여 계획화 사업에서 더욱 잘 구현될 수 있게 하여 준다.

동시에 그것은 전국의 모든 계획 일'군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계획화 사업에서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 및 책임성을 더욱 높이게 함으로써 당성의 원칙과 군중 로선을 보다 전면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우리 나라에서 계획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강화는 금번 새로 창설된 지방 계획 기관들의 기능과 임무에서 더욱 명백히 반영되고 있는바 그것들은 국가 계획 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중앙 공업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계획 작성과 그 실행에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 경제 각 부문들 간의 호상 련계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그리 하여 지방 계획 기관들은 인민 경제 앞에 제기된 과업을 해당 지역 내의 생산 현장에 직접 접근하여 구체화하는 경제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게 되였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또한 인민 경제 매개 부문의 작전 계획과 개별적 기업소들의 전투 계획을 국가의 전략적 과업 해결에 보다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도록 경제 지도에서 높은 기동성을 보장하여 준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계획 단위들은 나라의 전략적 계획의 한 부문을 담당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가 작성한 전략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작전 및 전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특히 《…작전 계획을 바로 작성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아래 단위인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들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전투 계획 즉 실지 생산 계획을 작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계획화 체계의 전국적 일원화는 국가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작전 및 전투 계획 작성 단위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전면적으로 보장케 함으로써 모든 계획들을 나라의 전략 계획 실행에 복종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체계는 강력한 지령 통보 체계를 동반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형편을 항상 손'금 보듯 장악할 수 있게 하며 그리 하여 매 시기, 매 부문들에서 제기되는 사업의 선후차와 중심 고리, 사업 방향과 당면한 과업 등 제반 문제들을 적시에 포착하고 전국적인 견지에서 그것을 기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가 국가 전략 계획의 과학성과 작전, 전투 계획의 현실성을 가장 정확히 결합시키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

의 경제 활동을 국가가 제시한 총적 과업 해결에 더 잘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국가적 지도의 통일성과 기동성의 보장—바로 여기에 새로운 계획화 체계가 가지는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실로 새로운 계획화 체계에는 그 조직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의 작성 및 시달 절차, 상하 간의 지도 체계와 부문 간의 련계 체계, 계획 기관들의 활동 형식과 사업 절차, 지령 통보 체계 등 계획화 사업의 전반적 분야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기동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관통되고 있다.

2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획화 사업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케 함으로써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다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요인을 정확히 결합시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된다.

계획화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면 전국의 모든 계획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광범한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을 계획화 사업에 적극 인입할 수 있도록 계획 기관들의 체계와 사업 질서, 사업 방법 등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계획화 사업에 대중을 얼마나 광범히 인입하는가 하는 문제가 국가 계획 기관의 체계와 사업 질서 및 사업 방법 등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바로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기구 체계와 사업 절차 및 사업 방법 등을 확고하게 조직화하고 있다.

사실 상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가 수천 수만의 계획 일'군들을 잘 발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획화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한 그것이다.

이 체계 하에서는 나라의 모든 계획 일'군들이 국가 계획 기관과 계획 세포들을 통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침투하여 직접 생산자들과 계획을 토론하며 계획 수행에서 걸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서로 배우고 도와 주는 사업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 것으로》(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만드는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일반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군중 로선에 기초한 계획 작성의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매해 계획 토의 사업이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구현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년간 계획의 예비 총화 및 새해 계획의 작성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그 전 해에 벌써 몇 개월씩 훨씬 앞당겨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비상히 높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며 경제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의 능숙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금번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계획 작성 단위들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으로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하여 놓았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의 원칙을 나라의 전략 계획 작성 단위까지 포함한 인민 경제 계획 작성의 모든 고리들에서 조직화된 체계를 통하여 관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체계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전략 계획 작성에 참가하는 국가 계획 기관들이 행정 경제적 지도 단위인 도, 시, 군에 포치됨으로써 국내 모든 지역과 인민 경제 모든 단위에 직접 침투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결국 국가 계획 위원회가 도, 시, 군에, 중앙의 계획 일'군들이 지방에 항시 주재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리하여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국가 계획 위원회가 직접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 현지에 접근하여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알아 내며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계획 작성에 최대한 조직 동원하며 계획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관 또는 지방 본위주의적 현상을 근절시킬 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또한 국가 계획 기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계획 세포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며 모든 계획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게 함으로써 계획화 사업에 생산자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더욱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 계획 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 세포는 국가 계획 기관의 지도 통제 밑에 인민 경제의 일정한 부문, 일정한 지역 또는 기관, 기업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행정 경제적 및 생산 업무적 활동을 진행하는 작전, 전투 계획 수행 단위의 계획 부서들이다. 계획 세포는 계획의 작성, 생산 기술적 지도, 자재 공급 등 기관 기업소 경영 활동의 전반적 부문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일'군들은 생산자 대중 및 행정 기술 일'군들과 함께 기업 활동에 직접 참가한다.

따라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계획 세포들을 잘 발동시키는 것은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보다 실'속 있게, 보다 구체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 계획 위원회에 직속하는 지방 계획 기관들을 창설함으로써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다리를 마련하였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계획 세포들에 대한 우로부터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을 더욱 폭 넓게 관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인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체계이며 나라의 모든 계획 일'군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적극적인 체계이며 전략 계획 작성 단위로부터 작전 전투 계획 작성 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통하여 당의 군중 로선을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체계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전국적인 일원화의 계획화 체계는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군중 로선, 중앙 집권적인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계획 작성의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을 정확히 배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계이다.

3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는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경제 부문들과 지역들 간의 균형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 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더 한층 촉진시킬 것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의 계획성이란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부단한 균형성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가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균형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부단히 발전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 우월성이며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공고화와 그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증하는 담보로 된다.

균형의 보장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 계획화의 중심 내용으로서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항상 인민 경제 계획화의 기본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계획화에서의 균형 문제가 결국 나라의 생산 자원 및 기술 력량을 동원 리용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특히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는 오직 인민 경제가 계획적으로,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기초 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균형 문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 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 만일 경제 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파괴된다면 막대한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가져 오게 되며 일시적으로 개별적 부문에서 높은 발전 속도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지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인민 경제의 합리적인 균형 보장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전국적인 균형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매개 계획 단위들의 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균형은 확대 재생산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생산 수단과 소비재 간,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호상 관계 등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직접 관련된 인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균형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주도적이며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기타의 모든 균형 관계를 규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는 이러한 균형 문제만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균형과 함께 일정한 부문 내부 간 또는 지역 내부 간의 균형, 공장, 기업소 내부 계획화에서 제기되는 균형 등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균형은 그것이 어떠한 균형이든지 간에 모두 밀접히 련계되여 있으며 서로 보충하여 주는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균형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이 모든 균형들을 전체적인 련관 속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통일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 당에 의하여 확립된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는 균형 문제 해결의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계획화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가 실현됨으로써 모든 계획 기관들과 계획 세포들은 전국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자체의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는 나라의 모든 균형을 인민 경제 전반의 균형, 전 국가적인 균형에 보다 잘 복종시킬 수 있게 하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전국적인 균형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차적이며 주도적인 고리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 균형의 현실성을 보장한다.

그것은 또한 국가가 국가 계획 위원회에 직속하는 지방 계획 기관들을 통하여 균형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정확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즉 지방 계획 기관들은 계획화 사업에서 일원화된 지도 체계에 의하여 도적인 균형, 시, 군적인 균형을 설정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부문 간, 지역 간의 균형을 현지에서 책임적으로 검토하며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속도와 균형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특히 지방 경제의 부문 간 련계와 그 종합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이 체계는 국가 계획 위원회의 지방 출장소 형태인 지방 계획 기관들로 하여금 지방 경제의 부문 별 관리를 담당하는 인민 위원회, 경공업 위원회, 농촌 경리 위원회, 건설 위원회 등의 계획을 련계시켜 해당 지역 내의 종합적 균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적 견지에서 생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균형의 변화, 균형의 다면성을 정확히 예견하고 속도와 균형 관계를 옳게 해결하는 것은 실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비상히 높

은 속도로 전진하면서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성숙 정도, 경제적 잠재력과 내부 예비,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적 준비 정도 등을 정확히 타산함으로써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속도와 균형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여 왔다.

우리 당은 금번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새로운 계획화 체계를 창조함으로써 인민 경제 전반의 균형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 수단과 소비재 간, 공업과 농업 간,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균형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속도에 가일층의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다.

* *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확립된 계획화에서의 전국적인 일원화 체계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강화에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확립된 군중 로선에 기초한 계획화 체계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 발전으로 되며 계획화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계획 일'군들은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본질과 기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함으로써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할 것이다.

환률 인상과 남조선 경제

전 기 홍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남조선 화폐와 미국 화폐 간의 교환 비률이 변경되였다.

환률 변경에 따라 남조선 화폐의 대외 가치는 다시 절반으로 저하되였으며 환률 제도는 《자유화》되였다.

금번 미제가 취한 환률과 환률 제도의 이러한 개편은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된다.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의 《자유화》에 의하여 남조선의 물가 및 대외 무역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가 미국 딸라에 더욱 철저히 예속되고 그에 의한 착취와 략탈이 일층 강화됨으로써 남조선의 민족 경제와 인민 생활의 파괴 몰락 과정은 더욱 급속히 촉진될 것이다.

현시기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 개편의 략탈적 본질을 밝히는 것은 남조선을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에서 벗어 나게 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을 각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

세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위한 제국주의 팽창 정책 실현에서 환률 문제는 항상 첨예하게 제기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에 대한 금융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국의 화폐를 지배적 지위에 올려 놓으며 다른 나라들의 화폐를 자기의 부속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제국주의 팽창 정책에서 환자 정책이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제국주의자들의 환자 정책은 금융 정책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서 그것은 식민지에 대한 재정 금융적 침략, 경제적 침략의 중요 공간의 하나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환자 정책을 통하여 식민지들에서 재정 금융 부문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환자 정책은 식민지 착취와 그 착취 범위 확대의 중요한 무기로 된다.

레닌은 미국 출판물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였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딸라와 은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딸라가 있다. 우리는 은행을 만들 것이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레닌은 이어서 이 글에는 딸라에 의한 독점 자본의 세계 제패 야망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에서도 현물 형태에 의한 착취와 함께 화폐 형태에 의한 예속과 략탈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금번 환률 인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화폐 형태에 의한 예속과 략

탈이 강화되였다는 데서 특징적이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원과 미국 딸라의 환률이 일거에 2 배로 인상된 것이다.

물론 종전에도 환률이 일거에 2 배로 인상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환률의 액면 단위의 크기에 있어서 금번과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례는 없다.

(단위~1 딸라: 원)

인상 년 월 일	환 률	인상 비률 (배)
1945. 10.1	0.05	
1948. 10.1	0.45	9
1949. 6.14	0.90	18
1950. 5. 1	1.80	36
1950. 5.15	1.60	32
1950. 6.15	1.80	36
1950. 11.1	2.50	50
1951. 11.12	6.00	120
1953. 12.15	18.00	360
1955. 8.15	50.00	1,000
1960. 2.23	65.00	1,300
1961. 1. 1	100.00	2,000
1961. 2. 1	130.00	2,600
1964. 5. 2	255.00	5,100

우의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130 원 대 1 딸라를 255 원 대 1 딸라로, 즉 환률을 《자유 시장 시세》의 수준에로 끌어 올렸다.

각이한 화폐 단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화폐의 교환 비률로서 통화의 대외 가치를 표시하는 환률이 일거에 2 배로 인상된 실례는 세계의 어느 나라들 간의 환률 변경에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남조선 통화의 대외 가치가 대폭적으로 저락된 반면에 미국 딸라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딸라에 의한 지배와 략탈이 그 만큼 더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환률이 《자유화》, 《현실화》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 환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공정 환률과 자유 시장 환률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시기 미국 정부와 남조선 괴뢰 정권 간의 공정 환률은 전반적 외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 환률로서 일정한 기간 환자 거래의 비률을 고착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유 시장 환률은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환률로서 이것은 항상 공정 환률보다 그 비률에 있어서 높다.

해방 후 미제는 수십 차에 걸쳐 남조선 화폐와 미국 화폐의 환률을 인상하였다.

그들은 해방 후 오늘에까지 각종 환률을 무려 38 회에 걸쳐 인상하였다.

물론 미제가 지난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환률을 인상하였지만 괴뢰 정권과의 각종 협약, 협정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이나마 환률을 고정시키군 하였다.

그러나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미제는 환률을 외환 시장에서 그 날그 날 형성되는 환자 시세에 따라 변경되게 하였다.

즉 255 원 대 1 딸라의 교환 비률을 기준으로 하되 이 비률은 《국제 통화 기금》과의 거래에만 적용하게 하고 실제상 시장 시세에 따라 환률을 255 원 대 1 딸라 이상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환률이 《자유화》, 《현실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률이 《자유화》, 《현실화》됨에 따라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에게 부등가 교환에 의한 략탈의 조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남조선의 외화, 물가, 대외 무역이 미국 딸라에 더욱더 종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 관리 면에서 매상 집중 제도를 환 증서 제도로 전환시킨 것이다.

물론 종래의 매상 집중 제도와 현재의 환 증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미제가 모든 외화를 《한국 은행》에 집중시켜 외환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한다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량자가 동일하다.

다만 환 증서 제도가 매상 집중 제도에 비해 다른 점은 외화를 《한국 은행》에 집중시키고 그 대신 외화를 획득한 자에게 획득한 외화와 동일한 액면의 외환 증서를 주어 이를 외환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속 자본가와 모리 간상배들에게 외화가 더욱 집중되고 반면에 중소 기업가, 상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예속 자본가들에게 부정 축재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마련해 주며 중소 기업의 몰락 과정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제의 화폐 형태에 의한 예속과 략탈이 보다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의 이러한 환자 정책 상 변화는 미국 자체의 경제 위기와 남조선의 사회 경제적 파국과 관련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는 2 차 세계 대전 후 다섯 번째의 경제 공황의 위협이 드리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년간 미제는 심각한 딸라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는 1962년에 22억 딸라였던 것이 1963년 1.4 분기에 년률로 환산하여 32억 딸라에 도달하였다.

금 보유량은 1963년 7월 5일 현재 156억 딸라로서 전후 최저의 수준에 떨어졌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지는 이에 대하여 《전후의 딸라 지배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다른 한편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는 최근 물가가 폭등되고 통화가 팽창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물가는 1960년 이후 3 년 동안에만도 80~90%나 등귀하였으며 통화량은 같은 기간에 200억 원 선에서 400억 원 선으로 뛰여 올랐다.

지난 6월 15일 현재 남조선 통화량은 415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가 추구하는 《경제 안정화》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경제적 지배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다소나마 모면하고 식민지 지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매여 달리게 되였다.

미제가 오늘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일본에 분담시키기 위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적극 끌어 들이면서 화폐 형태에 의한 지배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게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는 환률 인상을 통하여 우선 남조선 시장에서 형성되는 《현실적》 환률의 토대 우에 물가를 재편성함으로써 남조선 경제에 대한 딸라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종전까지 미제는 일반 공정 환률을 변경할 때 그 비률을 자유 시장 시세에 의한 실제 환률보다 낮게 설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물가 등귀를 억제하고 재정 긴축, 저임금, 저미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계획은 《자유 경제 체제》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략탈 책동과 호상 모순 관계에 있다.

즉 실제 상 예속 자본가들의 경제적 독점과 투기를 조장시키는 《자유 경제 체제》는 필연적으로 《경제 안정화》에 대한 타격으로도 된다.

특히 미제의 거듭되는 환률 인상은 그 만큼 남조선 통화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따라서 물가는 더욱 폭등되고 경제적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환률 인상을 통하여 남조선의 물가를 국제 가격과 일치시킨다는 가면 밑에 실제로는 남조선 물가를 자유 시장 가격으로 조정하며 《자유 경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남조선 시장에 대한 딸라의 지배를 더욱 강화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미국 국무 장관 러스크가 금번 환률 인상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조치》라고 극구 《찬양》한 것도 우연하지 않다.

미제가 금번 환률 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지출되는 군사비의 보다 많은 몫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남조선과 같이 경제 전반이 미제의 완전한 부속물로 된 조건에서 환률이 인상되였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잉여 물자의 가격이 자동적으로 인상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는 잉여 물자 가격 인상에 의하여 략탈한 자금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배와 군사비 확대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미제가 금번 환률 인상을 통하여 략탈한 약 130억 원 이상의 자금도 바로 그러한 것으로 리용될 것이다.

금번 환률 인상에서 미제가 추구하는 것은 또한 남조선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사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유리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환률 제도의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무역의 《자유화》, 기업체들의 《자유 경쟁》, 은행 리자의 《현실화》 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미국 사자본은 물론 딸라와 관련되고 있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 사자본의 침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금번 환률 인상을 미리부터 준비하여 왔다.

지난해 미제는 《국제 통화 기금 대표단》을 남조선에 끌어 들였으며 금년 3월에는 현지 사환'군들과 박 정희 도당과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박 정희 도당은 지난 5월 2일에 남조선 통화와 미국 딸라와의 환률을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

박 정희 도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중요하게는 자체의 경제적 곤경과 관련된다.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 남조선 경제가 전례 없는 파국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의 정치적 지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박 정희 도당은 조성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걸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춘궁기에 환률 인상이 남조선 경제에 주게 될 후과에 대하여 우려하면서도 환률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미제가 강요하는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의 변경을 통하여 박 정희 도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첫째로,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그들은 환률을 인상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의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원조》를 받으며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남조선의 외화 위기를 완화해 보려는 것이다.

박 정희 도당은 환률 제도의 《자유화》에 의하여 우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자극하는 한편 외자 도입의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외자 도입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의 이러한 타산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제반 사실은 금번 환률 인상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다소나마 모면해 보려는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본래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환률 인상은 중요하게 종주국의 정치 경제적 력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환률 인상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식민지 예속국 경제에 대하여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남조선과 같이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되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 남조선은 정치, 군사적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면에서도 미제의 완전한 종속물로 되여 있다.

생산과 류통 및 재정 금융과 무역 등 경제 전반의 명맥을 미제가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체들의 원료, 연료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환률이 인상되고 환률 제도가 《자유화》된다는 것은 남조선 경제에 더욱 큰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의 야당들까지도 환률 인상은 《기본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위험한 수술》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환률 인상은 우선 물가 체계를 딸라에 더욱 종속시키며 전반적 물가 등귀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중요 공업 원료의 80~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환률을 인상하는 것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자동적으로 오르게 할 것이며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폭등시킬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환률이 인상된 이후 1 주일 간에 남조선의 전반적 물가는 20~30%나 인상되고 그 중 량곡, 원면, 비료, 유류 등은 근 40%나 인상되였다.

물가의 폭등은 필연적으로 전기, 철도, 전차, 뻐스 등 각종 료금을 인상시키게 한다.

남조선의 《경제 기획원 장관》까지도 《료금 조정》은 《원가고》로 인한 《불가

피》한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환률 인상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남조선 중 소 기업체들의 자금난, 원료난을 더욱 심화시키며 공업 상품과 농산물 간의 협상 가격 차로 인한 령세 농가들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등귀는 또한 소비재 생산 자본의 집중 과정을 촉진시키며 경제 부문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 변경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의 다른 하나는 남조선 경제가 미제와 외국 독점에게 더욱더 예속되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 형식 상이나마 일정한 기간 유지되여 온 고정적인 환률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유화》됨으로써 환률이 미국의 《원조》 정책에 더욱더 복종되게 되였다. 따라서 남조선의 물가 체계는 물론 재정, 금융, 무역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미제의 통제와 지배가 강화될 것이다.

특히 환률의 《자유화》로 말미암아 외국 자본의 침투의 길이 열려졌다.

환률이 인상된 후 벌써 미국의 은행인 《훠스트 내쇼널 시티 뱅크》와 박 정희 도당 간에는 2천만 딸라의 단기 차관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독점 자본가들은 《남조선의 화폐 평가 인하는 일한 협조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의 변경이 초래하게 될 후과는 남조선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악화이다.

환률 인상으로 인한 물가 등귀는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고 그들에 대한 추가적 수탈을 강화시킬 것이다. 1961년의 환률 인상 당시에 남조선 농민들은 화학 비료 구입에서만도 년간 220억~270억 환을 수탈 당했으며 금번 환률 인상에 의하여 금년도에만도 약 50억 원을 착취 당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인민 생활의 령락으로 말미암아 구매력과 부담 능력은 더욱 감소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재정, 류통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의 혼란과 파탄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최근 남조선 실업계에서 환률 인상 이후의 전망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경제계에서는 금후 물가가 최소한 30~40% 정도 등귀되며 환률은 또다시 《년 내에 300 : 1~350 : 1로 될 것》이며 《극도의 불경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률 인상을 계기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급격히 높아 가고 있다.

금번 환률 인상 이후 남조선 인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봉급을 인상할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비료 가격의 인상을 우려하면서 인상될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학자는 《서울 방송》을 통하여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특히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의 립장으로 볼 때 눈 앞이 캄캄할 지경》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의 가일층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정치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며 미제와 괴뢰 정권의 통치 지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우기 날로 장성 강화되는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력량은 남조선 인민들의 각성을 급속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미제와 괴뢰 도당들을 전률케 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은 계속 외세에 매여 달려 멸망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주 자립의 광명한 길을 따라 나가느냐 하는 두 갈림'길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환률 인상과 환률 제도 변경의 후과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자면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를 몰아 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일체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이 합작하여 전 민족의 력량을 동원한다면 절박한 오늘의 남조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외세에 의존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이 그를 말해 주고 있으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반부 인민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금자탑이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손을 떼야 한다

문 영 환

미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오늘 라오스에서는 극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합법적 통일 정부가 파괴되고 새로운 전면적인 국내 전쟁의 위험이 다시 증대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 지역에 대한 정찰 비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사식 폭격기들까지 대량 동원하여 이 지역을 폭격하는 야수적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에만도 400여 대의 미국 분사식 추격기들과 《티-28》형 전투 폭격기들이 해방 지역 상공을 침범하였으며 100여 차에 걸쳐 도시와 마을들을 폭격하고 기총 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책동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미 제 7 함대를 인도양에까지 접근시켜 라오스의 애국적 인민들을 위협하며 자기들의 무력을 증파하는 한편 타이를 비롯한 추종 국가 군대들까지 이 나라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무력 간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또다시 새로운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 행위는 비단 이 나라 인민들 뿐만 아니라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고 간섭을 저지시키는 것은 라오스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며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의 안전을 위하여 지극히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 인민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더불어 라오스 사태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으며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다.

*　　*

최근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과 전면적인 내전 도발 책동은 지난 4월 19일 비엔티안에서의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더욱더 로골화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오스 친미 세력의 두목 푸미 노사방의 졸개들인 쿠프라시트와 시호를 사촉하여 비엔티안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미제와 라오스 우파들은 처음에 무력으로 수반나 푸마를 연금하고 그를 수상직에서 《파면》시켰다가 그 후 연금을 해제하고 수상직에 복직시키는 연극을 꾸미였다.

그들이 수반나 푸마를 연금하였다가 그것을 해제하고 그를 복직시키는 연극을 꾸민 것은 자기들이 직접 라오스 민

족 통일 정부를 전복하는 것보다 이미 저들의 통제 하에 들어 간 수반나 푸마를 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세 관계측 협정과 1962년 제네바 협정에 대한 파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극에 뒤'이어 미제는 수반나 푸마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통일 정부를 파괴하고 애국 력량을 반대하는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소위 《확대 개편된 정부》와 《군대 통합》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음모의 산물이다. 그들은 쿠프라시트-시호 도당의 《국군 혁명 위원회》를 사촉하여 감금하였던 수반나 푸마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합법적 중립 정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를 친미 분자들의 소굴로 전화시켰다.

사실 상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위협과 압력으로 《정부》 수상 수반나 푸마는 유명 무실한 존재로 되고 있으며 라오스 세 관계측의 쥬리히 협정과 자르 평원 협정에 근거하여 조직된 그리고 1962년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의 국제적 담보를 받은 라오스의 합법적 민족 통일 정부는 와해되고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였다.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이며 민족 통일 정부 부수상인 수파누봉이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애국 전선당과 진정한 중립파 세력을 제거하고 친미 반동 분자들로 조작된 이 새로운 《통일 정부》는 평화와 중립의 길로 나아가는 라오스 련립 정부를 미제의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변시킨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정부》를 《개조》하는 한편 중립파 군대와 우파 군대의 《통합》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옴으로써 중립 세력을 우파에게 용해시키며 그를 애국 전선당과 대립시켜 라오스 애국 력량의 단결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군대 통합》에 의하여 라오스 중립파 군대 내의 일부 불견실한 층들은 군사 정변의 주모자들의 지배 하에 들어 갔으며 미제의 새로운 전쟁 정책에 리용되고 있다.

오늘 해방 지역을 비롯한 라오스의 광범한 지역에서 미제의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군중 집회와 시위들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으며 미제와 우파의 통제 하에 있는 진정한 중립파 군대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애국 전선당 측으로 대량 의거해 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진정한 중립파 군대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이 항거에 대하여 총포로 대답하고 있다.

미제는 수반나 푸마의 《요구》라는 미명 하에 직접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고 있으며 애국 전선당과 라오스 중립 세력의 기지들을 폭격하고 수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불사르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라오스에서 제네바 협정에 기초한 정화가 파괴되고 라오스의 사태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준비되였고 조장되였으며 또 실지로 그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라오스에서의 사태 악화의 원인이 자기들의 간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테트 라오군과 북부 월남군의 공격》에 있다는듯이 사태를 전도하면서 도리여 저들이 마치

도 라오스 사태에 대하여 그 무슨 《관심》이라도 하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의 강도적 론리이며 저들의 죄행을 다른 사람에게 들씌움으로써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위협》을 념불처럼 떠드는 존슨 정부의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자기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사회 여론의 규탄을 모면할 수 없다.

지금 미제는 라오스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남부 월남을 비롯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중국, 민주 월남을 비롯한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과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국 통치자들이 《라오스는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인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며 라오스는 《거의 불가피적으로 미국이 남부 월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게릴라전의 한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지역에서 전쟁 확대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극도의 위기에 처한 동남 아세아 지역 특히는 남부 월남 전쟁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보자는 것임을 잘 말해 준다.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계속 참패를 당하고 있으며 동남 아세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배격 당하고 있다.

그들은 남부 월남에서 10여 년 간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으나 아무러한 결과도 얻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다. 그들은 오늘 2만 5,000여 명의 미군과 700여 대의 비행기를 포함하여 수 많은 군수 물자들과 현대적 살인 무기들을 동원하여 침략 전쟁에 광분하고 있으나 남부 월남 인민들과 인민 무장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는 참패를 당하고 있다.

악명 높은 호전 장군 테일러의 남부 월남 파견과 지난 6월에 진행된 《호노룰루 회의》 그리고 최근에 있은 존슨의 동남 아세아 《정책 성명》 등은 이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조치》에 의하여 그들은 남부 월남 괴뢰들에게 추가적으로 1억 2천 500만 딸라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폭격기를 비롯한 새로운 군수 장비들을 끌어 들여 남부 월남에서의 《특수 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라오스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위기를 수습해 보려 하고 있다.

백악관의 두목들과 펜타곤의 호전 장군들은 라오스를 완전히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또한 민주 월남,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침략 기지로 전화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민주 월남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서 라오스 공군 기지를 리용하였다는 것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된다.

미제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준비하여 왔다.

1954년 인도지나의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후 이 국제적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자기의 주구들을 사촉하여 1958년 7월 그들은 라오스 련립 정부를 전복하고 친민적인 사나니코네 정부를 조작하였으며 1959년 7월에는 수파누봉을 비롯한 애국 전선당 지

도자들을 체포하고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들을 공격케 함으로써 국내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무력 간섭을 감행해 나섰었다.

미제의 이러한 무력 간섭이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와 라오스 애국 력량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파탄되게 되자 1960년 4월에는 보다 철저한 친미 주구인 솜사니트를 내세워 군사 독재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12월에는 푸미 노사방을 사촉하여 사반나케트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중립 세력과 애국 전선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내전을 도발하게 하였다.

미제의 침략 책동은 1962년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후 더욱 강화되였다.

그들은 라오스 반동들에게 더 많은 현대적 무기와 군수 물자들을 공급하며 군사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반역 도당들을 해방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로 내몰았으며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감행케 함으로써 정화 협정을 유린하고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라오스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감행하였으며 라오스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 중립을 파괴하여 왔다.

이 모든 것은 미제야 말로 라오스 인민의 첫째 가는 원쑤이며 제네바 협정을 파괴하고 라오스의 독립과 평화를 유린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 준다.

미제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라오스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라오스 문제는 벌써 오래 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였을 것이며 라오스는 민족적 화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미제의 침략 책동이 계속되는 한 라오스에서의 독립과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동남 아세아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자기의 군대와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야 한다. 그들은 라오스에 대하여 간섭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 라오스 문제는 라오스 인민 자신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라오스 인민의 념원에 부합되고 라오스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된다.

미제의 무력 간섭으로 말미암아 라오스의 사태가 더욱더 엄중하여지고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파괴되고 있는 조건에서 라오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최근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부수상이며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인 수파누봉이 언명한 바와 같이 라오스 세 관계측 지도자들의 회담을 시급히 진행하여야 하며 14 개국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것은 1962년 제네바 회의 14 개 참가국들은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제네바 협정의 리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수호하려는 진정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네바 회의 참가국 14 개국 국제 회의의 소집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6월에 비엔티안에서 조작한 이른바 6 개국 《비엔티안 협상》은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미제의 책동을 정당화하여 보려는 기만적인 술책인 것이다.

라오스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리행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1962년 제네바 회의 참가국의 대다수 나라들을 제껴 놓고 미제의 추종 국가들로만 라오스 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은 또한 완전히 비법적인 행위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기만 술책으로써도 라오스에서 저지른 저들의 죄과를 엄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제 여론을 오도할 수 없다.

오늘 라오스 인민은 미제의 로골적인 침략 책동에 더욱더 경각성을 높이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고 있다.

해방 지역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들에서 농민, 청년 학생을 포함하여 애국적 승려들까지도 반미 시위와 군중 집회들을 진행하고 있는바 지난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기간에만도 이러한 집회들에는 연 46만여 명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비단 해방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지어 사반나케트 도당들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들과 미 군사 고문들의 통제 밑에 있는 군대 내에서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비법적으로 《통합》된 군대 내의 애국적 중립파 장병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통제를 반대하여 애국 력량의 편으로 대량적으로 넘어 오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중립파 군대 내에서 2개의 락하산 대대가 봉기를 일으키고 집단적으로 두옹 대좌 휘하의 애국적 중립파 군대에 의거하여 왔다.

애국 전선당을 비롯한 라오스 애국 력량도 급격히 장성 강화되였으며 그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라오스 애국 전선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을 중심으로 하는 애국 전선당은 미제를 몰아 내고 라오스 문제는 라오스 인민 자신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군중들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를 핵심으로 하는 라오스의 광범한 애국 력량은 라오스 애국 전선당의 령도 하에 해방 지역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으며 공격하여 오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제의 침입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의 그 어떠한 정치적 음모 책동과 기만 술책으로도, 현대적 무기의 힘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저지시키며 라오스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이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있으며 싸우는 라오스 인민들에게 전투적 련대성을 보내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협회 서기국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라오스 내정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꾸바 신문 《오이》는 《양키들아, 학살 만행을 중지하라》고 미제를 단죄하면서 싸우는 라오스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유린하고 공공연하게 무력 간섭을 감행하며 또다시 국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를 한결같이 규탄하며 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민족적 화목을 성취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조선 인민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라오스 인민은 미제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와 중립, 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는 라오스에서 손을 떼고 자기들의 침략 군대와 군수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야 한다. 만약 그들이 라오스 인민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 여론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계속 침략 책동에 매여 달린다면 조선, 꾸바, 남부 월남에서 당한 것과 같이 라오스에서도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도덕적으로 더욱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경 원 형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지 밑에 영 제국주의자들이 그 주구 라흐만을 사촉하여 꾸며 낸《말레이시아》는 이 지역 인민들과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강력한 대결 투쟁에 의하여 난항에 봉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조건에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이 《사생아》의 여명을 부지하며 그것을 기정 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미제는《말레이시아》를 둘러 싼 분쟁의 원인이 마치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에 있는듯이 사태를 외곡하면서 공갈과 압력으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을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말레이시아》의 존속은 이 지역 인민들과 인도네시아 인민들에 대한 큰 재난으로 될 뿐만 아니라 동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때문에《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애국적 투쟁이며 동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투쟁이다.

《말레이시아》는 신식민주의의 도구

제국주의는 부패하고 쇠퇴하여 갈수록 더욱더 식민지 통치에 매여 달린다. 그들은 종전과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환경에서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형태로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한다.

그들은 일련의 나라들에 형식 상《독립》을 《부여》하고는 그 나라들을《련방》,《공동체》 또는《동맹》에 얽매여 놓고 자기들이 길러 낸 괴뢰들을 리용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여전히 이 나라들에 대한 예속과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

영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작된《말레이시아》가 바로 이러한 신식민주의 수법의 산물이다.

동남 아세아의 이 지역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인민들의 각성이 비상히 제고되고 있는 조건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종전의 방법으로는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최근 년간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투쟁은 비상히 고조되였다.

1959년 사라와크 인민들이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무장 폭동을 일으켰으며 1962년 12월에는 다시 브루네이 인민이 브루네이 인민당의 지도 밑에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게 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이 지역의 《불온한 정세는 영국의 극동 전략 상 골치'거리로 되고 있다》고까지 하면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 위기에 대하여 우려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영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들의 식민지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상 동남 아세아 특히 《말레이시아》 지역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식민지 리권이 크게 집중되여 있는 초과 리윤의 원천지이며 대외 침략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대이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산지이며 주석, 고무 및 기타 자연 부원이 매우 풍부하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이 풍부한 자연 부원을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하고 이로부터 매년 막대한 리윤을 짜 내였으며 또 짜 내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현재 말라이의 고무, 야자, 코코아의 80%와 주석의 60%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 지역 수출의 70%와 수입의 75%를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말라이에서만 하여도 매년 이 나라 재정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리윤을 얻고 있는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기간에 영국 독점 자본이 말라이의 고무와 주석을 략탈하는 데서 얻은 리윤만 하여도 무려 8억 5천만 파운드나 된다.

《말레이시아》 지역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고률 리윤의 원천지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반공》의 기지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영 제국주의자들은 1957년 10월 영국 침략군을 무기한 말라이에 주둔시키는 《대외 방위 및 호상 원조 협정》을 강압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에는 2,500 명의 영 련방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영원히 자기의 수중에 장악함으로써 극동에서 중근동에 이르는 《반공》《포위선》을 강화하며 이것을 《반공》의 《방파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투쟁이 거세차게 앙양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써는 자기 지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 영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옛지위를 보존 강화하며 동남 아세아에서의 그들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련합하여 통치》하는 수법에 따라 비교적 반동 세력이 《강한》 말라이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를 통합하여 《말레이시아 련방》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을 진보적 세력과 격리시키며 그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압살하려 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 《련방》과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말레이시아》를 발판으로 인도네시아의 주변에 수 많은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자기의 괴뢰들을 사촉하여 부단한 파괴 활동을 감행하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포위하고 압력을 가하며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결국 이 나라를 전복하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오늘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인민들이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그처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말레이시아》와 미제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이 조작한《말레이시아 련방》은 오늘 더욱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다.

미제가 이 《련방》을 그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비호하고 있는 것은 이《련방》이 자기들의 동남 아세아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련방》을 제국주의 군사 쁠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동남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는 침략 체제를 재편성하는 데 리용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년간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 정책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으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부 월남에서의 《특수 전쟁》은 진퇴량난의 궁지에 빠지고 있으며 라오스에

서의 《비밀 전쟁》도 더욱더 수습할 수 없게 되였다.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에 의하여 하루에 무려 200만 딸라나 허비하면서 감행해 온 《특수 전쟁》은 남부 월남 인민과 무장대에 의하여 실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 3년 간에만도 1,500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25만 5,000 명의 괴뢰군을 상실하였으며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의 기둥으로 삼아 오던 《전략촌》과 《공수 작전》도 완전히 쓸모 없는 것으로 되였다.

라오스에서도 애국 력량의 장성과 진출에 의하여 미제와 그 괴뢰들의 지반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자기들의 믿음직한 《동맹》으로 간주하여 오던 《세아토》가 분렬되여 마비 상태에 처하여 있다.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 정책은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로 미제는 《동남 아세아라는 범의 잔등에 올라 앉아 그 대로 타고 있기도 난처하고 뛰여 내리기도 곤난한 처지에 있다.》 (6월 1일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지)

이러한 정세 하에서 미제는 《말레이시아》를 이 지역에서 파탄되고 있는 저들의 침략 체제를 재편성하는 데 리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레이시아》를 군사 동맹으로 전변시켜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대만, 비률빈 및 《말레이시아》 지역에 이르는 군사 전략적 체제를 재편성하며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중동 조약 기구》 및 《안쥬스 동맹》과 련결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반공》 전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고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에 압력을 가하며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외교적 압력, 경제적 《봉쇄》, 군사적 위협으로써 인도네시아를 투항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괴뢰들을 내세워 《회담 외교》를 벌려 놓음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립장을 변경시키며 《말레이시아》와 《타협》케 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코크와 최근 도꾜에서 진행된 3개국 《회담》은 미제의 이러한 술책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미제는 《말레이시아》 분쟁의 《조종자》로 자처하면서 지난 3월 타이의 방코크에서 인도네시아, 비률빈, 《말레이시아》 3 개국 외상 회의를 벌려 놓고 인도네시아에 《타협》을 설교하려 하였다.

미제의 사촉 하에 《말레이시아》는 북부 칼리만탄에 끌어 들인 영국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리여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지 말 것을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적 외교 정책으로도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궐기한 인도네시아의 립장을 변경시키며 굴복시킬 수 없었다.

통신 보도들에 의하면 최근 도꾜에서 진행된 3 개국 수뇌자 《회담》도 라흐만의 파렴치한 주장에 의하여 결국 아무런 결과도 달성하지 못 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외교를 통한 정치적 압력과 함께 경제적 《봉쇄》로 인도네시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 허다한 정치적 부대 조건을 붙이며 《원조》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자기의 괴뢰인 라흐만을 사촉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봉쇄》하려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일떠선 인도네시아 인민을 반대하기 위한 책동은 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자기들의 파렴치한 외교적 압력과 경제 《봉쇄》 정책으로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을 제압할 수 없게 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종자》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영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최근에는 로골적으로 무력으로 위협해 나서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자기들의 호전 장군과 전쟁 상인들을 이 지역에 빈번히 파견하는 한편 미 제 7 함대의 활동 범위를 인도양에까지 확대하면서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영국으로 하여금 북부 칼리만탄에 군대를 증파케 하는 동시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등 추종 국가들의 《군사 원조 사절단》을 《말레이시아》에 파견케 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공갈하고 있으며 《세아토》 군대를 쟈바 해상에 동원하여 공공연하게 군사 연습을 감행하고 있으며 지어는 남조선, 대만 등지로부터 《의용군》까지 모집하려 하고 있다.

미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만약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 난다면 그것은 지금 남부 월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전쟁》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레이시아를 둘러 싸고 전쟁이 일어 나는 경우》 미국은 《안쥬스 조약에 따라 자기의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라흐만을 사촉하여 군비와 병력을 증강케 하고 있는바 최근 《말레이시아》 반동들은 21 세부터 29 세까지의 청년들을 《징집》하여 인도네시아를 반대하는 데로 내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제야말로 《말레이시아》의 배후 조종자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파산은 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공모에 의하여 조작되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이 지역 인민들을 반대하고 착취하기 위한 범죄적 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한 첫날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으며 오늘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음모 책동에 대처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싸우는 북부 칼리만탄 인민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고 한 수카르노 대통령의 호소와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대결 방도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한 아이디트 동지의 호소는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궐기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의 반영으로 된다.

작년 9월 《말레이시아》의 조작을 반대하여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시위 투쟁을 서막으로 한 반《말레이시아》 투쟁은 오늘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으며 가일층 조직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파괴 책동에 대처하여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음모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 외교 술책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 《말레이시아》와의 통상 관계를 단절하고 지금까지 제 3 국을 경유하여 통상하던 나라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유항, 자유 통상 지대 및 수출항을 설치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일체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대 조건이 붙는 일체 외국의 《원조》를 배격하고 미 영 독점 자본이 장악하고 있던 일련의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질식시키려던 기도는 파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압력과 무

혁적 위협을 반대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민족 전선은 《말레이시아 분쇄 행동 사령부》를 설치하고 싱가포르, 말라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일련의 지역들에서는 《말레이시아》를 반대하여 싸울 수 있는 민병 사단들이 편성되여 있다.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2천 5백만 명 이상의 남녀 청년들이 《지원병》 대렬에 참가하고 있으며 북부 칼리만탄 국경 지대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병사들은 《손에 무기를 튼튼히 들어 쥐고 현 위치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을》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은 경제, 군사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면에서도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쟈카르타를 비롯한 일련의 도시들에서 미국 영화 상영이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 대사 죤스와 파괴 책동을 일삼고 있는 《평화군》 성원들도 배격 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은 오늘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적극적이며 선봉적 역할에 의해서 가일층 대중화되고 있으며 조직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말레이시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 계획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 조작을 반대하는 데로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였으며 《련방》이 조작되고 그 침략성이 더욱더 로골화됨에 따라 그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선단에 서서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을 이를 분쇄하는 데로 궐기시키고 있다.

오늘 400만의 조직된 로동자들과 640만의 농민 협회 성원들 그리고 각계 각층 인사들이 2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과 함께 이 거족적인 투쟁에 대중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자기 조국의 민족적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고 동남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아세아를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며 인도네시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년 대표단을 포함하여 5 개 대륙의 44 개 국가 및 지역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지난 1월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신식민주의자들의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며 북부 칼리만탄의 민족적 독립을 지지하는 국제 청년 회의는 인도네시아와 북부 칼리만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미 영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다.

《전체 조선 인민은 〈말레이시아 련방〉을 분쇄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선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김 일성)

오늘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고 조국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조선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반제, 반《말레이시아》 투쟁에 일떠선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그것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하였으며 세계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이 한 개의 함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인민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 개의 함대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7 함대가 덤벼 든다 하여도 인도네시아 인민은 그것을 분쇄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미주 국가 기구》는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주 국가 기구는 미국의 식민지성이며, 군사 동맹이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는 도구》이다.

이 기구는 1948년 3월 30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제 9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정식으로 성립되였다.

그러나 그 전신은 1890년 제 1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창설된 미주 공화국 국제 련맹과 이 련맹의 상설 기관인 미주 제국 통상국이다. 그 후 1910년 제 4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는 그것을 범미 련맹으로 개편하였고 1948년 4월 30일 제 9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미주 국가 헌장》을 통과시키고 범미 련맹을 미주 국가 기구로 개편하였다.

이 기구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이 지역 나라들 간의 《리해의 공통성》, 《호상 련대성》, 《서반구 국가들 간의 단결》, 《법률적 평등권과 완전한 독립 원칙》에 기초한 호상 《사회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의 협력》, 《련대성의 발전》 등의 구호 밑에 조작되였다.

미주 국가 기구의 조직 기구로서는 5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미주 국가 회의(최고 기관)와 자문 기관인 미주 국가 외상 회의, 상설 기관인 리사회, 《구체적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회의 등이 있다.

미주 국가 기구에는 미국과 아르헨틴, 볼리비아, 브라질, 꾸바, 도미니카 등 라틴 아메리카의 20 개 나라가 망라되여 있지만 실지 조직 기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대다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며 총비용의 70%도 미국이 직접 부담 하고 있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주 국가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확립하며 날로 앙양되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그것은 미제가 이 기구를 조작한 후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그들이 감행하고 있는 술책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주 국가 기구를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영국을 비롯한 기타 식민지 소유국을 배제하고 자기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당시 서구라파 나라들에 비하여 뒤늦게 자본주의 길에 들어 선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자기 세력을 라틴 아메리카에로 뻗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이 지역을 분할 강점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구식민주의자들을 쫓아 내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하나의 예속의 올가미에 묶어 세우는 것이 필요하였다.

미제는 미주 국가 기구를 창설하면서 그것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할 것을 타산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사실 상 이 기구를 조작한 후 빈번히 회의를 벌려 놓고 일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자기의 그러한 침략적 야욕을 계속 강요하였다.

그것은 미주 국가 기구 제 1 차 회의에서부터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19 세기 말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손의 개최 하에 소집되였던 미주 국가 기구 제 1 차 회의에서 미제는 《미주 국가 간 관세 련맹 조직》, 《미 대륙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기관 설정》에 관한 2 개 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남미 시장에 대한 저들의 특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며 이른바 《중재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남미에 대한 자기 세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것이였다. 이것은 대표들의 일치한 항의에 의하여 전부 부결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에 있어서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써 2 차 대전 전까지 무려 8 차(1890년부터 제 2 차 대전 전까지)에 걸치는 미주 국가 회의와 기타 일련의 모임들을 벌려 놓고 이러한 파렴치한 술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과 미제는 이 시기에 와서 벌써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구라파 세력들을 구축하고 거의 대부분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2 차 대전 후 미제는 이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적 략탈의 희생물로, 미 독점 자본의 중요한 자본 투자지로, 값싼 원료 공급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친 침략 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였다.

1951년 3월 26일 미주 국가 외상 회의에서 미제는 남미주 제국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며 전쟁 준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군사 경찰, 경제 《협조》에 관한 10여 개의 결의를 강제로 통과시켰다. 1957년 8월에 진행한 미주 국가 기구 경제 리사회 회의에서 미제는, 미국의 경제적 침투를 제어하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공동 시장》을 창설할 데 대한 중미 국가 경제 대표들과 기타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의 합의된 제안을 파괴하고 그 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중미 자유 통상 지대》와 《경제 통합》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중미 국가에로 미국의 상품을 자유롭게 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지역의 값싼 원료와 로동력을 리용할 수 있는 공장들을 마음 대로 건설할 수 있게 하였다.

케네디가 내놓은 신식민주의 올가미인 《진보를 위한 동맹》도 바로 1961년 8월 17일 우루과이에서 열린 미주 국가 기구 경제 사회 리사회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듯 미주 국가 기구를 통하여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정치적 및 경제적인 통제자로 등장하였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의 농산물과 채굴 공업, 전기 공업, 가공 공업, 철도, 항구, 전신, 전화 등 거의 대부분이 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으며 이곳에서 그들은 실로 막대한 리윤을 긁어 가고 있다. 제 2 하바나 선언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는 돈이 끊임 없이 미국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1 분에 거의 4,000 딸라, 하루에 500만 딸라, 1 년에 20억 딸라, 매 5 년에 100억 딸라가 흘러 나간다》고 쓰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주 국가 기구를 다만 경제적 침투와 략탈의 도구로써만 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기구를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류혈적 탄압과 대외 팽창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도 리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다.

특히 꾸바 혁명이 승리한 후 그들은 《반공》과 《민주주의 안전》의 구호 하에 자기의 추종 국가들을 동원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첫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집단적 간섭과 도발 행동을 감행하면서 저들의 반꾸바 침략 책동을 정당화하여 중미 지대를 반꾸바 침략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데 이 기구를 리용하고 있다.

1954년 3월 1일 제 10 차 미주 국가 회의에서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할 목적 밑에 있지도 않는 국제 공산주의 《간섭》이라는 구실 하에 《반공산주의》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저들의 예속으로부터 자립적인 독립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1960년 8월에 코스타 리카의 수도에서 진행된 미주 국가 외상 회의에서는 꾸바 내정에 간섭하며 미주 국가들로부터 꾸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깜빠니야를 조작하려 하였으며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의 제의에 의하여 1962년 10월 23일에 소집된 미주 국가 리사회에서는 꾸바에 있는 미싸일 기지를 즉시 해체하며 꾸바에로의 《공격용 무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무력을 사용할 데 대한 미 국무 장관 러스크의 제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일체 무력들을 자기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한 책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1962년 4월에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 특별 회의에서는 미국 펜타곤의 예속물인 첫 범미 군사 기구 《미주 방위 위원회》를 조작하였으며 작년 3월에 소집된 《중미 국가 대통령 회의》에서는 꾸바 침공을 위한 《련합 전선》을 형성하려는 흉계를 꾸미였다. 그리고는 미 《군사 고문》의 지휘 하에 미주 국가들의 륙해군의 공동 군사 연습들을 빈번히 벌려 놓고 있다.

1962년 8월 페루 해안에서는 미국, 아르젠틴 및 우루과이 해군의 참가 하에 《우니타스-3》이라는 해군 훈련과 남부 태평양에서는 칠리,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및 미국 해군들의 공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였고 같은 해 9월 혼듀라스에서는 증강된 전략 공군의 지원 하에 항공 운수 부대가 참가한 반유격전 군사 훈련이 진행되였다.

미주 국가 기구를 통한 미제의 이러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및 군사적 예속화 정책에 의하여 이 지역 인민들은 오늘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겪고 있다. 석

유, 동, 주석, 철, 망간 등 풍부한 지하 자원들과 넓고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오늘 무서운 굶주림과 기아, 인간 이하의 빈생고에서 헤매고 있다.

미국 잡지 《뉴스위크》도 《라틴 아메리카의 2억 인구 중 근 반수는 매일 밤마다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자리에 누우며》, 《불치의 병도 아닌 병으로 죽었거나 늙기도 전에 쇠약하여 죽은 사람은 1 분에 4 명, 하루에 5,500 명, 1 년에 200만 명, 매 5 년에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미주 국가 기구가 미제의 하나의 신식민주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미주 국가 기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1963년 멕시코 기술자 로조는 성명에서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의 《결정》은 라틴 아메리카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이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으로 된다고 규탄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볼리비아 외상은 이 기구에서 볼리비아가 탈퇴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워싱톤에서 진행한 미주 국가 외상 회의를 앞두고 7월 13일 아르젠틴 학생들은 이 번 회의에서 자국 정부가 꾸바에 대한 외국의 간섭 행동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르젠틴 종합 대학 학생 련맹 대표단은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고 미주 국가 기구가 꾸바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이와 같이 날로 각성되고 있는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주 국가 기구는 반드시 분쇄될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자유의 날은 도래할 것이다.

윤 수 삼

근 로 자 제 15 호 (루계 253 호)

편 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8월 3일 발 행 • 1964년 8월 5일

ㄱ—430482 값 40 전